

1. 조사대상자의 직력별 분포는 2년 군이 39%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평균직력은 3.3년이였다.

2. 조사대상자의 건강장애 호소율을 보면 전 항목의 평균 호소율은 45.8%였고,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장애 호소율보다 정신적인 건강장애 호소율과 이와 관계깊은 소화기장애 호소율이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3. 일반적으로 낮은 직력층의 건강장애 호소율이 높았으며 특히 정신적 항목, 소화기 항목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4. 일반적으로 높은 직력층일수록 신체적 건강장애 호소율이 높았으며, 특히 눈, 귀 항목, 호흡기 항목의 호소율이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위에 나타난 사실들로서 이들의 정신적 증상의 호소율은 신체적 증상의 호소율보다 높게 나타나 현재까지의 단편적이긴 하지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여 온 신체적인 면에 집중된 건강관리 사업의 방향을 보다 정신적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장 재해발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2.

서 인 선

전북소재 노동부지정 산업장인 모제지업체와 제련업체 각 1개소씩을 대상으로 하여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동안에 발생한 재해 261건 및 209건에 대한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산업체별로 비교·분석 함으로써 산업장에서의 안전관리사업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분포는 제지업의 경우 총재해자 261명중 남자가 250명(95.8%), 여자가 11명(4.2%)였고, 제련업의 경우 총재해자 209명중 남자가 207명(99.0%), 여자가 2명(1.0%)였다. 성별 분포에서 남자 재해자가 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대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재해자율이 높은 것이지 남녀에 따른 타발생요인이 개제된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분포는 제지, 제련업체 모두 25~29세 연령군이 87명(33.3%), 55명(26.3%)였고, 제련업의 경우는 3~5년군이 50명(23.9%)였으며, 교육정도별 분포는 중졸인 자가 제지, 제련업체 각각 110명(42.1%), 89명(42.6%)였다.

이상 재해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본 결과는 대상산업체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수에 따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재해자를 대상으로 분석이기 때문에 재해발생 양상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재해자 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율을 구한 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동안에 재해건수 261건중 도수율이 25.01, 강도율이 1.33, 건수율이 57.87였으며, 제련업의 경우는 재해건수 209건중 도수율이 18.64, 강도율이 2.04, 건수율이 42.73였다.

3. 근로자들의 연령별 재해발생 건수율은 제지업의 경우 30~34세 연령군이 76.9였고, 25~29세 연령군이 52.7였다.

4. 근로자들의 근무기간별 재해발생 건수율은 제지업의 경우 1년 미만군이 168.9였고 1년미만군이 65.4였다.

5. 재해원인 분석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불안전행위에 의한 재해가 85.6%로 가장 많았고, 불안전 설비로 인한 재해가 12.2%,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가 2.2%였으며, 제련업의 경우는 불안전행위에 의한 재해가 69.5%, 불안전설비에 의한 재해가 26.8%,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가 3.7%였다.

6. 상해종류별 재해빈도는 제지업의 경우 외상이 72.1%로 가장 많았고, 제련업의 경우는 화상이 34.7%였다.

7. 상해부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하기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8. 재해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경상이 63.3%, 중경상이 17.2%였고, 제련업의 경우는 경상이 40.7%, 중경상이 33%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서 재해발생 빈도는 젊은 연령층과 근무기간 1년미만군과 7년이상군에 높은 빈도를 보였고, 대부분의 재해가 예방가능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정도는 해가 거듭됨에 따라 심하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이 선 미

본 조사는 198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내에 위치한 병원 17개소, 학교 36개교, 서비스업소 14개소, 생산업소 44개소 총 111개 기관을 선정하여 여성 근로자의 취업 및 근로조건, 모성보호제도, 근로보건관리를 위한 시설 및 활동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각 기관의 여성근로자중 가장 수가 많은 직종 한 가지만을 선택